

---

---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 Association)  
참석, 논문발표 및 자문회의**

---

---

2016. 2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출장개요

□ 출장명: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 Association) 참석 및 연구논문 발표

□ 출장목적

○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 Association) 참석 및 연구논문 발표

- 1)발표주제: Impact of Aid for Trad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Food Trade (안수정 연구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 2)발표주제: Who benefits tariff reduction by KORUS FTA? - In the case of Korean orange market (최용호 부연구위원, 윤영석 연구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 3)발표주제: Who buys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functional foods? (서홍석 부연구위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 서홍석 박사에서 이상현 박사로 발표자 변경

※ 학회명 : 2016 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 Association  
48<sup>th</sup> Annual Meeting Program

- 학회일정 및 장소 : 2016. 2. 6 - 9(4일간),

Hyatt Regency San Antonio, San Antonio, Texas

○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자조금 활용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자문회의

- 회의일정 및 장소 : 2016. 2. 8, Hyatt Regency San Antonio

- 참석자: Gary W. Williams, Texas A&M University 교수 (Director, Agribusiness, Food, and Consumer Economics Research Center (AFCERC))

이상현 부연구위원, 안수정 연구원

□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출장지
글로벌협력연구부	이상현 최용호 안수정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2016년 2월7일(일)~11일(목) (3박 5일)	미국 샌안토니오

□ 주요 조사내용

-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AEA) 참석 및 연구논문 발표
- 농산물 및 통상 관련 최근 연구동향 조사

□ 주요 일정

일시	이동 및 주요 일정
2.7(일)	▪ 인천공항 → 델러스 → 샌안토니오
2.8(월)	▪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AEA) 등록 ▪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AEA) 참석 및 논문 발표 - 연구논문 발표 : Impact of Aid for Trad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Food Trade(안수정 연구원) ▪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 관련 자문회의(이상현 부연구위원, 안수정 연구원, Gary.W.Wiliams 교수)
2.9(화)	▪ 미국 남부농업경제학회(SAEA) 참석 및 논문 발표 - 연구논문 발표 : Who benefits tariff reduction by KORUS FTA? - In the case of Korean orange market(최용호 부연구위원) - 연구논문 발표 : Who buys environment friendly foods and functional foods?(이상현 부연구위원)
2.10(수)- 2.11(목)	▪ 샌안토니오 → 달러스 → 인천공항

## 2. 세부 출장 결과

### (1) SAEA 연구논문 발표

가. Session: International Trade 1: Agriculture and Trade

□ Title: Impact of Aid for Trad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rade

□ 발표논문 요지

- 본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은 개도국들이 글로벌 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개도국의 개발의 유효한 지원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음. AfT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그 효과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본 논문은 수혜국들의 주요 산업인 농업분야에 한정지어, AfT 투자에 따른 수혜국의 농산물 수출과 농업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계측해 보고자 함.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업분야의 AfT는 농업 GDP와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켰음.
  - 농업 AfT의 18개 분야를 큰 틀에서 성격에 따라 농업 정책, 농업 생산 및 자원, 농업 연구 및 서비스 등 3가지 분야로 분류함. 농업 AfT의 3가지 분야별로 농업 GDP 및 농산물 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업 정책과 농업 연구 및 서비스 분야의 AfT만 농업 GDP와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각 국의 자유도, 정부의 부패 통제능력, 정부효과, 정치적 안정도, 규제, 법, 언론의 자유 등의 정부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취약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AfT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정부의 부패 통제능력과 정치적 안정도 변수는 높은 국가에서 유효한 것으로 분석됨. 정부효과와 법 관련 지수들은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 농업분야의 AfT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 환경을 고려하여 비교적 효과적인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 Abstract

*The Aid for Trade (AfT)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mechanism for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y helping them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value chain. Grants on agricultural part in Af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2 and invested in various ways from agrarian reform,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to plant and post-harvest protection and pest control. In spite of the increase, there were only few researches on significance between Af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whether AfT has significant relation with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rade. It also examines whether there is heterogeneity in the response to AfT across recipient countries with different national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a subgroup analysis using a panel tobit model. Also, UN COMTRADE(PC-TAS) for the export data, the World Bank data for agricultural GDP, OECD QWIDS for AfT data from 2002 to 2013 were used. Our results show that AfT in agriculture has increased both agricultural GDP and exports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also found the most effective form of AfT in agriculture which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나. Session: SAEA Emerging Scholars

□ Title: Who benefits tariff reduction by KORUS FTA? - In the case of Korean orange market

□ 발표논문 요지

- FTA로 인한 관세 감축으로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며 소비자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있는 반면, 일부 소비자단체나 언론들은 FTA로 인한 가격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본 논문은 수출입 및 유통시장의 형태에 따라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논의함.
  - 우리나라 오렌지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GTA,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이용함.
-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우리나라 오렌지 수출입시장에서 미국은 약 95%의 점유율을 보여왔음. 한국의 100여개 과일수입업체들은 비영리 마케팅조합인 썬키스트에서 대부분의 오렌지를 수입함에 따라 시장구조가 불완전경쟁시장인 것으로 판단됨.
  - 불완전경쟁시장일 경우 미국의 오렌지 수출업자는 관세감축 스케줄에 따라 수출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남.
  - 따라서 시장구조를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했을 경우 소비자를 포함한 국내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FTA에 의한 관세 감축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 있어 일부 소비자단체나 언론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Abstract

*The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s increased recently as it is expected that tariff reduction by FTAs enhances consumer welfare of importing countries. However, unless the market is competitive, such expectation may not be realized. This arises because market prices can be distorted when exporters and distributors reflect the tariff reduction in pricing.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riff reduction by FTAs and distribution margin in Korea's orange importing market. Also, it measures the changes of consumer welfare by FTAs when price distortion occurs in distribution process. To do so, we use a partial equilibrium model to demonstrate Korean orange marke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GTA (global trade atlas),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US orange exporters contribute to distortion in pricing as the market consists of a few exporters and a large number of importer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benefits in consumer welfare from FTAs depend on the market structure, and policy*

*makers pay special attention on this implication when considering a new FTA negotiation.*

다. Session: Functional Foods

□ Title: Who buys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functional foods?

□ 발표논문 요지

- 본 연구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소비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9%의 가구가 친환경 식품을 구매하고, 47.5%의 가구가 기능성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본 논문은 친환경 식품과 기능성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식품기업의 마케팅과 고부가가치 식품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친환경 식품 선택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소득, 자녀유무, 연령 순으로, 기능성 식품에는 소득, 연령, 과거질환경험, 성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됨.
  - 친환경 식품은 교육수준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래의 환경에 대한 willingness to pay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기능성 식품의 경우에는 소득, 연령과 과거질환경험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기능성 식품의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보여짐. 특히 기능성 식품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득은 친환경 식품과 기능성 식품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두 제품이 모두 일반 식품에 비해 고급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친환경 식품 선택의 경우 교육과 자녀 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미래에 대한 투자의향이 높은 소비층이 주요 고객임을 알 수 있음. 반면에 기능성 식품은 선택의 경우 연령과 과거질환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본인 건강에 대한 투자의향이 높은 소비층이 주요 고객임을 알 수 있음.

Abstract

*The consumption behavior has been changing by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and health issues. The survey conducted in 2014 found that 34.9% of households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47.5% of them purchase functional foods, which indicates that almost a half of the households experience the use of those food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functional food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ood production and related policy development.*

*For our research, an econometric model was specified to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on the propensities of consuming environment-friendly food products and functional foods. Probit and Logit estimation procedures were used to obtain marginal effects of each factor. Data were obtained from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4 conduct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results suggest that household characteristics, consumption pattern and lifestyle are key factors that significantly determine probabilities of purchasing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functional foods. Other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ose effects of factors on probabilities are likely to different among food product types.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ood companies with respect to determining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Korean food markets..*

**(2)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 관련 자문회의**

참석자: Gary W. Williams, Texas A&M University 교수 (Director, Agribusiness, Food, and Consumer Economics Research Center (AFCERC)) , 이상현 부연구위원, 안수정 연구원

자문회의 주요 요지

-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의 자조금은 농업법에 의해서 판매대금의 일정 %를 떼어내어 자조금을 형성하고, 거기에 더하여 정부가 일정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함.
- 형성된 자조금은 해외 판매촉진, 국내 판매촉진, 연구개발 등에 사용됨.
- 그 중에서도 해외 판매촉진에 투자되는 자조금이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음.
- 자조금은 농민의 의사기구에 의해서 지속여부가 결정됨.

- 시초의 자조금은 1회성으로 시행하였고, 이후 자조금의 평가결과를 회람한 후 농민들이 직접 이 제도에 구속력을 부과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였음.
  - 이후 농업법에 의해서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었으며, 그 평가결과를 보고 자조금의 지속여부를 농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구조는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물량 공급에 이바지 하였음.
-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농가들이 자조금을 형성하면 WTO에 의한 수출물류비 철폐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
-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WTO의 위반사항이 아니며, 지속여부를 농가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음.

